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월 13일 (제98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집회를 마친 후 어느 타 교단 목사가 내게 물었다. “목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집회마다 성공하는 비법이 뭘입니까? 제가 목사님 집회에 참석도 해보고 인터넷으로도 여러 차례 봤는데 어떻게 매번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리고 대성공을 거두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 한 마디로 비법을 전수해줬다. “제 비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다. 나는 다른 방법은 모른다. 목회 34년 동안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해왔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을 때도, 이단이라고 교계에서 제명되었을 때도, 가족과 친구들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도, 해외 집회에 나가서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

목회 34년, 나는 기도의 외길을 걸었다. 권력 있는 자나 돈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지금까지 왔다. 그 방법이 남들이 볼 땐 답답하고 더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오직 이 방법만을 고수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되게 하였고, 수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셨으며,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게 하셨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가? 기도하라. 사업에 위기가 왔는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어떤 현명한 대책이 아니라 기도다. 왜?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 우유부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성공의 비법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자!

2019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

‘1월 6일, 오후 4시까지 예수중심교단 목회자들은 정장을 지참하고 기도원으로 다 모이십시오.’

불과 일정 삼일 전에 하달된 총회장 목사님의 지시였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원으로 향했다. 늘 목사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있었지만 양떼에게 젖을 짜서 먹여야 하는 목회자들은 때론 특별한 보양식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오후 5시. 남자들은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여자들은 하얀색 블라우스에 정장차림으로 소성전에 모였다. 첫 시간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다.

“나는 세미나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여러분은 로마의 멸망이 타살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

리가 있으면 잘라내야 한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렇다면 목자로서의 우리 삶이 자멸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나는 목회 34년 동안 터득한 지식을 압축해서 전하려고 여러분을 새해 벽두에 성산으로 부른 것이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아야 한다. 마음의 커튼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해라. 나를 드러내라.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스스로 빛을 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에게 환한 미래가 달려올 것이다. 둘째는 페일언하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지 마라. 내 탓이다.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잃은 것이 없

노력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라. 시기를 알아야 한다. 씨를 뿌리는 시기, 물을 주는 시기가 다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면 성도들이 보인다. 성도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 형편이 보인다. 때 끄러운 설교보다 두툼한 손으로 잡아주는 것이 더 낫다. 또 하나 당부하자면 건강을 잘 챙겨라. 건강을 잃는 것은 나를 세우신 주님과 내 성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성장발전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하셨는데, 매일 그 자리면 어떡하나? 명품 목사, 명품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힘든가? 다 버렸는가?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날의 영광



2019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1월 7일~9일, 장성예루살렘기도원)

살이라고 생각하는가?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및 이집트까지 지배하였던 최대 제국 로마는 타살이 아닌 자살로 끝난 나라다. 패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가장 큰 원인은 포퓰리즘(populism) 때문이다. 이는 인기영합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인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를 하다보니 귀족층과 특정층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이것이 불신을 낳아 불협화음을 내다보니 스스로 몰락하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도 같은 경우다. 예바 페론이 펼친 포퓰리즘 정책이 세계 5위 경제대국 아르헨티나를 빈민국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더욱이 교회의 포퓰리즘은 안 된다. 성도들 비위나 맞추고 예배가 행사위주로 가면 교회는 망한다.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종일 수 있는가? 유럽교회를 보라. 교회가 술집이나 박물관이 되었다.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는가.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썩은 뿌

리.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단 정직한 자에게 한해서다. 나는 가끔 장로들과 점심내기 골프를 하는데 그럴 때 몇 푼의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자들을 본다. 말을 아낄 뿐이지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는가. 부디 의롭고 공의롭게 살라. 또한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5)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스승에게 물어봐라. 해매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시간과의 싸움 아닌가. 어느 정치인이 시, 분, 초를 아끼겠다고 했다. 맞다. 사람은 자고로 쫓기면 사냥감이 된다. 사냥꾼이 될 것인가, 사냥감이 될 것인가는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달려있다. 지금 몇 십 명 성도를 이끌 때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을 좋은 시기이니 게으름을 잘라내고 최선을 다하라. 오늘의 나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냥 된 것이 아니다. 학점을 자면서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고,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를 바라다보며 주의 종으로서 자긍심을 갖자. 내 생각을 버리고 주군의 뜻을 이루자.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예루살렘의 명예를 위해!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와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아멘!”

목사님은 정장을 입은 이유에 대해 사병이 아닌 장교 교육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내면이 외모로 드러나는 법, 장교로서의 자세와 옷매무새, 언어를 교육하신 것이다.

늦은 저녁, 지교회 장로님이 보내주신 방어가 너무 맛있었다. 더불어 많은 먹을거리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다음 주에 계속)

기자 신묘수 전도사
jesus7857@gmail.com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수1:1~9)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목회 35년차에 들어서면서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살얼음판을 걷은 기분입니다. 아차하면 얼음이 깨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차가운 물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해외선교를 하며 단 한 번도 사전 답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려움도, 황당한 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KGB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시베리아에서는 한밤중에 높은 경찰모와 시퍼런 눈을 한 조사관들이 숙소로 들어닥쳐 취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숙소에 가스연기가 스며들어와 질식사할 뻔도 했고, 멕시코에서는 무허가집회라며 집회를 이대로 강행하면 체포하겠다는 통보에 정부허가를 얻기 위해 경비행기에 올라 8시간의 목숨을 건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위협도 있었고, 비행기서 내리는 순간 죽이겠다는 협박도 있었고, 자동차가 뒤엎어져 생사를 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외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모험이다!” 모험은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담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무슨 일에도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

제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곳이 있으면 담대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경찰서와서 큰소리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 같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너희들 다 끝장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밭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민14:9). 이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을 찢으며 전한 말이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

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1:5~6), 이는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 이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담대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달려들었다. 3개 들고 나간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3~24)며 담대했던 것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인들 어찌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이 두렵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부들부들 떨립니까? 권력 있는 자 앞에 가면 주눅이 듭니까? 그러나 오늘 밤에라도 그들을 거둬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렵습니까? 겁납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갈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사51:12).

저는 눈 같은 목사, 오른 팔 같은 장로가 떠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간다면 레드카펫을 깔아 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야 망하지, 돈이나 권력 있는 자가 떠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이 떠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들이, 하나님이 떠난 나라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날까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시51:11).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하나님은 겁쟁이를 쓰시지 않습니다.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드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겁 많고 소심하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쓰시지 않겠네요.”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담대한 자를 쓰십니다. 대신 담대하지 않은 자,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어떻게요? 성령

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은 사실 나약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하자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삿6:15)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나님도 기드온이 그런 사람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에게 불이실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립하시니”(삿6:34).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니 미디안 족속을 치러 가는 위대하고 용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류 최대의 적이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도, 아무리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위대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도 잡혀 십자가를 질까봐 어린 아이 앞에서 스승인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 자가 성령을 받으니 병을 고치다가 잡혀 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하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4:19~20)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건만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자연을, 악한 영들을 두려워마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새해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웃들에게, 그리고 그들

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가격이 없고, 가게 진열대에서 볼 수 없는 선물이지만, 마음을 느끼고 눈에 비친 선물로 여러분이 존엄하게 살고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새해가 큰 일, 큰 승리, 그리고 삶과 시련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수 없는 정신을 가져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이 실현되고 행운이 여러분에게 더 자주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러분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을 주고, 영감은 여러분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나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범사에 힘과 지혜, 강신과 순결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일부를 준 사람들이 고통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정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며, 꿈이 더 밝아질! 그리고 과거의 모든 친절하고 즐거운 행동들이 대담하고 즐겁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재능과 선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최

고, 평안,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평화, 번영, 사랑, 행복, 마음의 평화, 성공, 기쁨, 선량, 훌륭한 건강과 신의 풍요로운 축복을 빕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따라간 자들을 통해 내면서, 종종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봅시다. 2019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예수중심교회 담임 슬라바 목사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시다



1992년 8월로 기억된다. 이초석 목사님의 동경 집회가 있어서 나는 주일에 배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로 일본으로 향했다. 목사님께서는 비밀로 하고 먼저 동경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날 월요일, 나라타공항으로 동경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을 영접하러 나갔다. 게이트를 나오시던 목사님은 나를 보고 놀라셨다. 어제 서울에서 만났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놀라시며 나를 바라보셨다. 그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목

사님을 영접하러 보내셨다고 말씀드렸다. 목사님은 그 날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두 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계시하셨다고 말씀하셨다(마10:10). 그 음성을 들으신 후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단 별로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놓으셨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시다(창22:14). 그 때 당시 목사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속옷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그것도 벤츠600에 호텔도 최고급으로 준비되어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교하러온 목사가 호텔에서 잘 수 없다며 교회에서 주무셨다. 식사는 먹어도 돈을 내고 먹지 않아도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식사하셨다.

그 때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었다. 1992년 1월 3일 금요일아침에 때 처음으로 예수중심교회에 나왔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있지 못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신주쿠역으로 가자고 하셨다. 영문도 모르고 모두 목사님을 따라 역으로 갔다. 그 때 목사님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셨다. 모두 따라하라고 하셨지만 아무도 따라하지 못했다. 그 때 저는 창피함이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러실까 그만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치지 않으시고 지하도를 다니시며 여전이 외치셨다. 그로부터 26년이란 시간이 지나 올해 때 일을 보내오셨다. 예수님과 함께 일본을 변화시켜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나는 생각해본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똑같이 하셨을 것이다. 그 때 신주쿠 역에서 외치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일본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때를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준비해놓으셨다. 그 영혼들을 찾아보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이제 우리 교단을 위해 준비해놓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일본예수중심교회 김장길 목사

성령에 감동된 진리를 말하라



전 지 전 능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지으신 영적인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었으니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복을 받았으나 거짓의 아버지 마귀의 말을 듣고는 마귀와 함께 영멸에 처해지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등 돌린 아담의 후예는 뱀이 쏟아내는 홍수 같은 말에 휩쓸리면서 그 말과 경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제 무덤을 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흘으시고, 때가 되면 영으로 전해지는 진리를 주시려 하셨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돌에 새긴 율법을

모세의 손에 들려 주셨으니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내실 예언이었고, 그들 중에 허락하신 성막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 진중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뵈는 소망을 가졌으니 메시아를 기다림이었다. 마침내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니 죄인 된 인류는 드디어 하나님을 뵈게 되었고, 그가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에 귀신이 통곡하며 떠나고 그 말씀이 인간의 귀에 들려지는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변혁인지라, 죽은 자가 홀연히 살아나 생명의 영역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이것이 인류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금홍이시다. 성경은 인자가 세상에 임하시는 길과,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일과, 그의 제자들이 다시 오실 심판주를 증거한 기록이다. 말은 일회성이어서 와전이 나 가감될 수 있으나 기록은 말의 가치를 거의 영구적이게 할 수 있다. 그가 오셔서 그의 고단한 육체로 인류가

가야할 새롭고 산 길을 내셨으니 곧 영생 길이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신의 몸을 세상에 두려 하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약교회다. 성령이 믿는 자의 몸에 임하시면서부터 성령은 강풍과 불꽃을 동반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땅 끝과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목 베임을 받는 제자들을 양육해낸다(계12:17). 오늘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진리를 말하자. 이는 성경 기록자들과 동일한 영감이니(벧후1:21)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라' 하심과 같고(벧전4:11), 우리 심령에는 진리의 말씀이 항상 셋별같이 떠올라 있음이다(벧후1:19). 성령은 우리가 할 말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기억나게 감동하시고(요14:26) 이에 순종할 때 우리 행위에서는 기사이적이 동반된다(막16:17~20). 그리스도가 친히 들어와 사시는 우리 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

자(빌1:21). 적당하게 세상과 윤색된 말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 줄 수 없다. 세상은 이론이 없어 고통이 아니라 진리를 몰라 허둥댄다. 성경이 전체 인류에게 생명이 되듯, 우리가 남기는 기록도 그리되게 해야 한다. 고단한 생활의 위로나 일회성 기호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주님의 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뛰게 되어야 한다. 성경을 닦아 품격을 높이고 그 진리의 위치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훌륭한 교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길러지도록 일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상기하자. 해가 바뀌어도 해 아래의 인생행로는 아비규환을 계속할 터이나 우리, 예수중심의 독자 제위와 그 선한 경영 위에 금홍의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며 신년사에 가름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대전예수중심교회 박덕규 목사

:: 부르심의 소망 ::

:: 귀를 기울이세요 ::

義(옳을 의)

한자를 만든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글자가 오랫동안 널리 통용되기 위해서는 그 글자를 만든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이들이 만든 몇몇 한자에서 창세기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등, 큰 배를 뜻하는 船(배 선)자를 보면, 舟(배 주) + 八(여덟 팔) + 口(입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에 탄 8명, 혹은 떠오르는 배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여덟 식구였지요(창7:13). 홍수를 뜻하는 한자는 洪(큰물, 홍수 홍)입니다. 이 글자는 水(물 수)와 共(함께 공)이 합쳐진 글자로, 共(함께 공) 글자에도 八(여덟 팔)이 있습니다. 洪(큰물, 홍수 홍)을 풀이해보면 대홍수가 있을 때에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인 ‘연혁’의 沿(따를 연)에도 水(물 수)와 八+口(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자에서는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창10:32), 즉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창조’, ‘조물주’에 쓰이는 造(짓다, 만들다 조)입니다. 이 글자는 丩(흠 토) +

丩(흠 뻗) + 口(입 구) + 乚(쉬엄쉬엄 가다, 달리다 착)으로 되어있는데, 丩(흠 뻗)은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造(짓다, 만들다 조)는 흠에 생명을 불어 넣어서 말하고 겹게 만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런 생명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 즉 아담 외에는 없습니다(창2:7). 이제 가장 중요한 글자인 義(옳을 의)를 보겠습니다. 義(나 아) 위에 羊(양 양)이 있습니다. 바로 내 머리에 양을 이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양 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열납하셨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즉 믿음으로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삶을 매순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머리 위에 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내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편안한 자세로 계시는지, 내가 급하게 달려가느라 예수님이 불편해하고 계신지를 항상 점검하며, 행여 예수님이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문천답, 만문만답이 예수’라고 늘 말씀하시는 이초석 목사님이 저의 목자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들여 예수님을 머리에 이고 총회장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5:21). 박영신 성도 rubyday0@naver.com

간절하게, 뜨겁게!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책을 읽을까 지난 주 서점을 찾았다. 이런 책, 저런 책을 보다가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내 눈을 의심하는 일이 있었다. 작년에 인터뷰했던 한 청년사업가 분이 책을 낸 것이다. 이분은 당시 나이 어린 평범한 아빠로 사업에 대해서 말을 아끼시기에 ‘자신의 사업 성공 스토리를 책으로 출판할 만큼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책을 다 읽었을 때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34세라는 어린 나이에 500억 자산의 회사를 성공시켰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집마저도 경매로 넘어가고 가족들과 동네 공영주차장 컨테이너 박스에 살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일찌감치 사업을 해야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던다. 23세 대학생 시절, 학교 창업프로젝트에서 지원한 500만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창업 3주 만에 6,000만 원 짜리 프로젝트를 파내고 회사가 승승장구한다. 그런데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투자가 필요했고 직접 발로 뛰며 업계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20대 사장에게 냉대와 무시는 기본이요, ‘나이 어린 대표’라는 선입견이 40대~50대 실무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똑같은 명함에 대리, 과장, 부장이라고 써서 다니고 영업을 한 후 기회가 잘 성사되어 계약할 때 사장이라고 밝혔더니 모두들 더더욱 신뢰를 했다고 한다. 또, 중간에 다른 업체의 고의 부도로 14억 빚도 떠안았지만 끈기로 이겨내었는데, 이것은 손에 베일 듯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경쟁하지 않고 독점할 수 있는 것들에서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성공을 향한 절실함, 부지런한 실천력, 사업의 굳건한 원칙, 처음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를 34세 청년사업가로 만든 요인이다. 이 청년사업가의 만남을 되새기며 나도 오늘 이루지 못한 꿈을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해서 반드시 이루어보리라 다짐한다. 송현혜 성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상위 1%가 가진 능력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명석한 머리와 세계적으로 유능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하버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강의는 바로 ‘인간관계론’이다. 미국의 MIT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하여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이고, 나머지 85%가 ‘좋은 인간관계와 타인과의 공감능력’이라고 대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교수 마틴 루프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비즈니스에서 더 혁신적이었다고 한다.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신제품 출시나 특허 출원은 물론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례 모두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든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이들이 교회 안팎에서 겪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아닐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12:18) 하시면서 인간관계를 중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공감능력’을 키워야 한다. 공감(共感)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으로, 같은 마음, 같은 편임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의 시작은 ‘공감능력’에서 출발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병들고 귀신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비통해하셨고, 아파하셨다. 그렇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능력(롬12:15)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공감능력을 갖는다. 겸손(謙遜)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니 자랑하고 싶은 맘이 줄고,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게 된다. 겸손한 마음

을 갖지 않고 실천하지 않을 때 다름이나 허영이 개입되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님을 관계 속에 개입시키면 된다. 예수그리스도 십자가의 낮아지는 마음을 품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여 생각하면 가능하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2:2~4)는 이 성경구절에는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한 ‘공감’과 ‘겸손’이 모두 담겨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속해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을까를 생각하며, 무너진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6:19). 권정미 집사 jmgood77@gmail.com

